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기획홍보팀 최종성 씨

승강기 제어반 교체로 전력소모 50% 절감

만약 건물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될까?

고층건물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낭비, 그 밖에도 생활의 제약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문명의 이기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한다.

이번 호 'ESCO피플'에 초대된 최종성씨는 12년동안 성모병원의 승강기 관리담당자로서 병원내 승강기를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해왔다.

■ 김인숙 기자 (kis@energycenter.co.kr)

여의도

에 위치한 성모병원은 지난 '86년 개원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의 8개 병원중 하나다. 건물은 지하2층, 지상14층의 본관을 비롯, 8층 규모의 마리아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셉관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에서 수용하는 입원환자가 750명에 직원이 1,378명, 여기에 보호자와 외래환자, 면회객들을 합하면 약 6,500여명 정도가 매일 이 병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곳에 설치된 엘리

베이터는 총 15대로 설 새없이 운행을 반복한다. 수용인원이 설치승강기에 비해 많다보니 운행횟수가 잦을 뿐 아니라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 특성상 승강기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시된다.

성모병원에서 12년간 승강기 운영관리 업무를 맡아보던 최종성씨. 그는 승강기를 자신의 '애마'라고 표현했다.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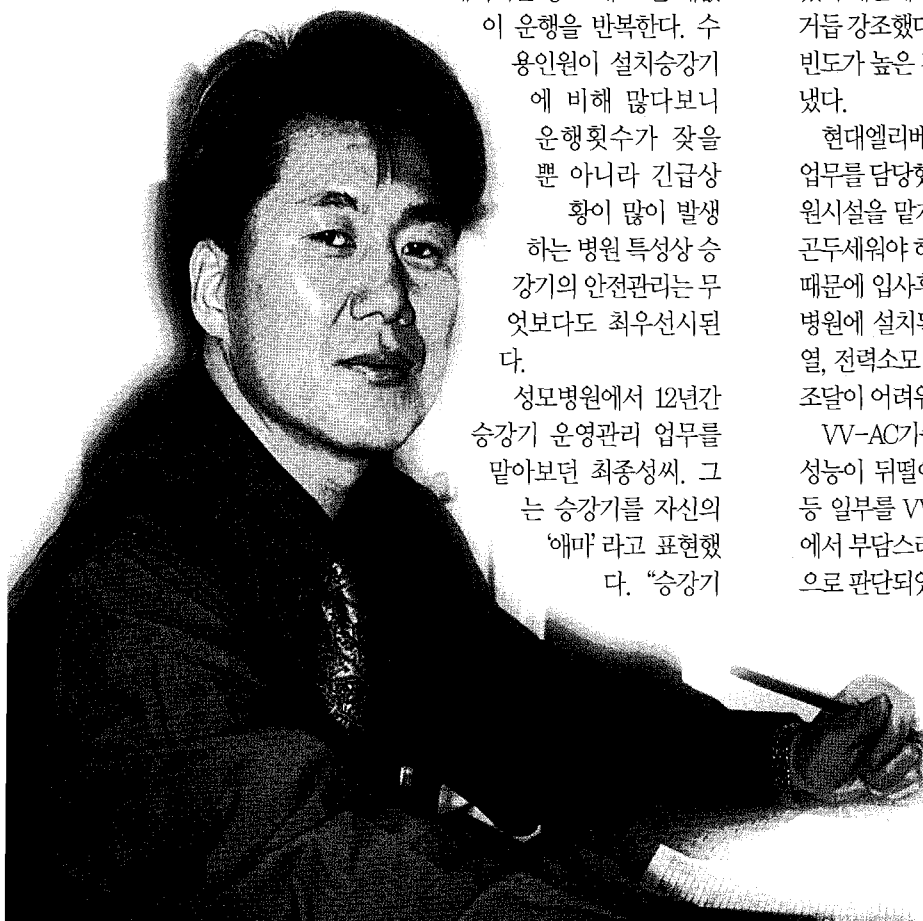
는 저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제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승강기에 이상이 생기면 내 몸이 아픈 것 같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만큼 승강기는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소중한 존재다.

또 그런 책임감과 애정이 없다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쏟아내는 그는 얼마전 한 APT에서 발생한 승강기사고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까워 했다.

책임자가 볼트 하나만 제대로 점검 안해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건물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빈도가 높은 것 같으며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미흡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근무하며 성모병원 승강기의 정기점검과 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최종성씨는 이곳 원장님의 권유로 직장을 옮겨 병원시설을 맡게 되었다. 24시간 운행되는 기계의 특성상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조그만 이상이라도 생기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후 한동안은 남모를 위장병에 시달렸을 정도란다. 특히 병원에 설치된 승강기는 대부분 86년 완공된 VV-AC기종으로 폐열, 전력소모 등의 운행상 문제점이 많았고 단종된 기종인데다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부분교체를 실시했다.

VV-AC기종은 소비전력, 역률, 유지보수, 고장율, 수명 등에서 성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제어반(Control Panel)과 전선, 조작반 등 일부를 VVVF로 교체하였다. 전면교체는 공사기간이나 비용면에서 부담스러워 이 곳의 여건상 부분교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모병원에서 12년간 승강기 운영관리 업무를 맡아보던 최종성씨.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7년 에너지절약 유공자 통상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기로 했다. '애마'라고 표현할 만큼 승강기는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소중한 존재다.

개체공사는 우진엘리베이터가 맡았고, 총 비용은 약 1,500만원 가량이 소요되었다. 승강기 한 대의 연간 전기요금도 이전보다 50% 절감됐고 금액으로도 5천만원 이상 감소한데 비하면 개체비용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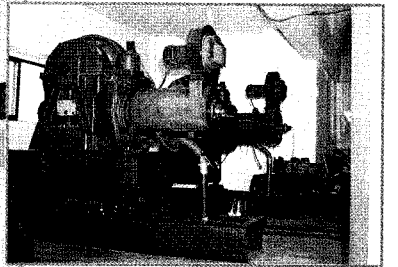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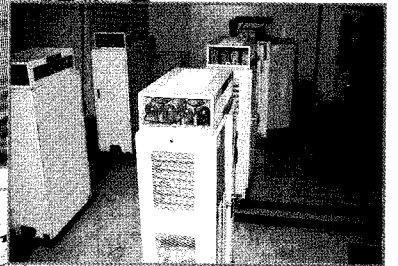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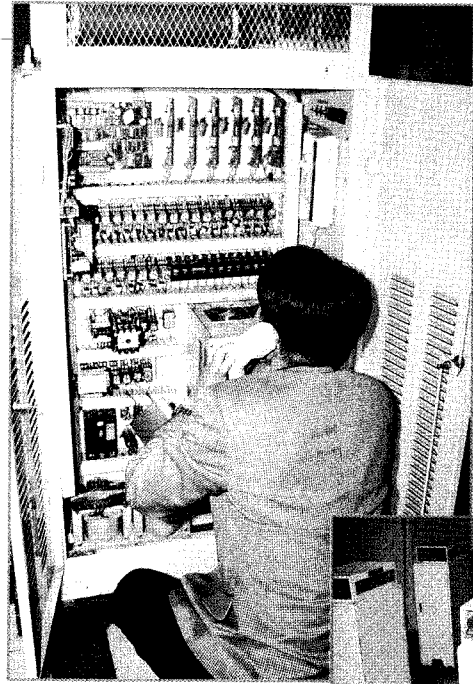
그는 시설개체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Data의 기안을 올렸고 이를 실사확인한 공단측은 에너지절약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종성씨는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7년 11월 에너지절약유공자 통상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라 표창사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750명 환자의 음식을 책임지는 영양과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운반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부분교체로 해결되자 영양과 식구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게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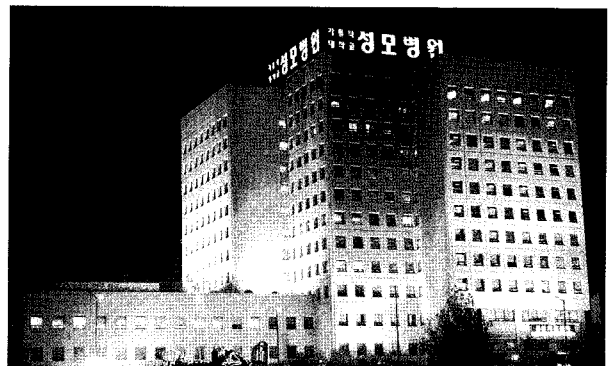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최종성씨는 이렇게 말한다. “교체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 충분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기종 교체시 업체에서 전면교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체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시에도 신뢰도를 중시해서 철저히 검증된 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가격을 너무 낮추려다보면 공사시행시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므로 적정가격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최종성씨는 승강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보통 승강기의 원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승강기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흔들릴 경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승강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고 영화에서처럼 로프가 끊어진다고 해서 추락하는 것도 아니란다. 로프 한 줄이 약 5톤의 무게를 견딜 뿐 아니라 기기 한 대당 5줄 이상의 로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승강기는 ‘구출구’ 이지 결코 ‘탈출구’가 아니므로 억지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해선 안된다. 오히려 탈출하려고 안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 사고를 초래한다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안전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승강기의 경우다.

승강기 부분교체로 시스템이 완비된 지금은 고장 등의 우려가 거의 없어 자체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외주용역을 준 상태이다. 최종성씨도 시설관리팀에서 기획홍보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삶의 이벤트를 만들자’ 라는 좌우명처럼 늘 소풍가는 기분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루를 계획한다는 그는 아직은 바쁜 환경이 낯설다. 병원 일부시설의 리모델링 작업이 추진중이어서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해는 야간대학에 입학해 실내건축을 전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병원의 홍보가 취약했던 터라 최종성씨는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자신의 재능을 맘껏 선보일 각오를 다졌다.



(왼쪽) 외래환자, 면회객들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 특성상 승강기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가운데) 승강기 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본관기 계실 내부 (우) 승강기 제어반 등을 교체한 후 전력소모가 기존의 50%로 줄었다. 교체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시 한다는 최종성씨.



총 3개 동으로 구성된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하루 평균 6,500여명이 병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